

<Catholic>

1. Catholic 탄생
2. Catholic 오류
3. Catholic 구원관
4. 십자군 전쟁

<카톨릭교회의 탄생>

기독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시작되며,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의 여정은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약 300년 동안, 기독교는 로마제국의 통치 아래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10대 로마 황제들의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사자의 먹이가 되고, 십자가형과 화형을 당했다.

심지어 기독교 박멸을 기념하는 비석을 세운 황제도 있었다.

로마의 귀족 중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국외로 추방되기까지 했다.

박해를 피해, 그리스도인들은 지하 공동묘지 근처의 카타콤 속에서 숨어 신앙을 지켜나갔다.

300년 동안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온 그리스도교는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에 의해 공인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기독교는 더 이상 불법 종교가 아니라, 로마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종교가 되었고, 이는 곧 유럽 전역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게 된다.

그 후,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보편적이고 하나된 교회'라는 의미로 "카톨릭(Catholic)"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Xn을 다스리는 단체. 교황은 황제가 지명하여 세움)

- 아리우스 논쟁과 니케아 공의회

또한 이 시기에는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졌다.

이는 당시 신학적 혼란 속에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당시 '아리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만든 첫 피조물이며, 하나님 보다 낮은 분"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이 주장은 당시 다신교를 섬겼던 이방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론이었다.

이교도들은 여러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신이 여럿이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다만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당시 카톨릭이 타협을 하게 된 것이다.

이때, '아타나시우스'라는 젊은 신학자가 일어나,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분"이라는 삼위일체의 교리를 강력히 주장하였다.

그의 논쟁은 결국 니케아 회의에서 받아들여졌고, 아리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되었다.

그러나 아리우스주의는 그 후에도 약 300~400년 동안 세력을 넓혔고, 훗날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등에서 유사한 기독교론을 계승하게 된다.

- . 기독교 공인 이후의 타락과 영적 암흑기

주후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후부터, 기독교는 커다란 영적인 어려움을 맞게 되었다.

200년 이상을 박해 속에서 견뎌온 크리스천들이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다음, 영적인 자만심에 빠진 것이다. 그들은 그 전처럼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고, 열심히 전도하지도 않으므로 순교자적인 정신을 다 잃어버렸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난 후에 가장 큰 관심은 로마의 수많은 이교도의 기독교로 개종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개종한 그들을 어떻게 하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타협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카톨릭에서 타협의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성상 숭배이며, 이교도들에게 성상 숭배를 허용하게 됨으로써 기독교는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이교도의 문화와 정서를 받아들이는 방편이었지만, 기독교 신앙을 크게 왜곡하게 되었다.

곳곳에는 크고 아름다운 성당이 세워지고 황제가 기독교를 보호하는 한편, 교황의 권위는 날로 중대해져 왕을 파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때로부터 약 천년 이상을 교회는 암흑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영적인 암흑시대였다.

이러한 타락은 1513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기까지 계속되었다.

- . 면죄부와 교리의 타락

카톨릭 교회는 죄 사함에 대한 교리를 인간의 행위와 선행 중심으로 발전시켰다.

죄는 회개로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나 헌금 등의 ‘보상 행위’로 보완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로 인해 면죄부 제도가 생겨났고, 사람들은 죄 사함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심지어 죽은 자의 죄까지도 면죄부로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죽은 부모를 위해 자녀들이 헌금을 바치는 관습이 퍼지게 되었다.

또한 ‘연옥 사상’이 등장하여, 천국도 지옥도 가지 못한 자들이 대기하는 곳이 있다고 가르쳤고, 연옥에 있는 이들을 위한 자녀의 선행이 천국 입성에 도움을 준다는 믿음이 생겨났다.

- . 루터의 종교개혁

이러한 교회의 타락에 마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여 면죄부와 교회의 부패를 강력히 비판했다.

루터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는 진리를 외쳤고, 이는 곧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 이 개혁의 흐름은 존 칼빈, 존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 그리고 오순절 운동, 은사운동, 성령운동으로 이어지며,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려는 영적 갱신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로마 카톨릭의 오류>

I. 로마 카톨릭의 우상숭배와 미신행위

성경은 우상숭배를 강력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다양한 성인상과 조형물, 유물들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예를 들어, 로마 성 베드로 성당의 베드로 동상은 순례자들이 발가락에 입을 맞추는 관습으로 인해 닳아 있다.

이 행위는 외형적으로 경외심의 표현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형상에 대한 숭배로 볼 수 있다. 카톨릭은 성인의 유골이나 유물 등을 신성하게 여기며, 기도와 절을 통해 그들로부터 은혜를 얻는다고 믿는다. 이는 구약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정죄된 형상 숭배와 유사한 행위이다.

II.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 사이의 차단

카톨릭은 교회 자체가 구원의 통로라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 교황과 성모 마리아, 전통 교리 등 여러 중재자를 둔다.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불리며, 끊임없는 계시를 받는 존재로 추앙된다.

카톨릭은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됨을 사칭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리아 자신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하며, 마리아만이 진리에 대해 정의 내리며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마리아가 스스로 '지속적인 계시'를 받아왔고 아직도 그 계시가 계속되고 있으며, 마리아는 스스로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많은 신자는 예수님보다 마리아에게 기도하며 구원을 의지한다.

또한 카톨릭은 성경 외에도 카톨릭의 전통도 성경과 동일하게 권위가 있고,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하며, 카톨릭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말해 줄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카톨릭 교회가 일러준 대로, 가르쳐 준 대로 절대적으로 철저히 굴복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절대 권위를 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다. 로마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일컬어진다.

그는 사도 베드로의 영적인 직계 후손으로서, 사도적 계승을 통해 사도 베드로의 모든 권위를 이어 받았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로마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부르는 것이다.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불리며, 무오류성(절대 잘못이 없다)을 주장한다.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의회는 공식적으로 교황의 무오류성을 교리화하였다.

그들은 그 앞에서 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없는 경의를 그에게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전통과 동등하게 두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III. 사제직과 성례전에 대한 잘못된 교리

카톨릭 사제는 일반 신자와 다른 특별한 존재로 간주되며, 성직자(사제)가 될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카톨릭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의 성직 수임을 받아, '사도적 계승'에서 나오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제들에게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권능을 부여해 준다.

그들은 성례전을 통해 실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고 한다.

예를 들어, 세례에서 물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고, 성찬에서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믿는 '화체설(Transubstantiation)'을 주장한다.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권능을 소유한 사제에 의해서라야 수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같은 주장은 당연히 성례전에 관한 교리 전체로 이어진다.

카톨릭엔 일곱 성례전이 있지만, 이 중 특히 세례성사와 성체성사 이 두 성사에 기적이 나타난다고 서슴없이 가르치고 있다.

그들의 이론은 사제의 역할에 의하여 물과, 빵, 포도주에서 기적이 역사하게 되며, 그 결과 이것들에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는데, 그 같은 기적적인 역사는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된 물이므로, 그 물을 어린아이 위에 부으면, 어린아이 안에서 기적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죄의 고백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제에게 해야 하며, 사제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가르친다.

사제는 면죄를 선언하고, 우리에게 죄사함을 베풀 수 있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제에 속한 사람들 외에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도록 교육을 받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히 4:14-16)이라는 성경적 진리를 무시한 행위다.

IV. 성모 마리아에 대한 과도한 숭배

마리아는 '하늘의 여왕'으로 일컬어지며, 우리가 일차적으로 찾아가야 할 대상이 되고 있다.

마리아는 “무염시대(원죄 없이 태어남)”와 “몽소승천(죽지 않고 하늘로 승천함)” 교리를 통해 신격화되었으며,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할 정도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마리아론은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섭고 두려우니 마리아를 통해 중보하라”고 가르치며,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훼손하고 있다.

또한 성인의 공덕(공로)을 나눠 받는 적공 사상도 등장한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불완전하여 성인들의 도움으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며, 그리스도 은혜의 충분성과 완전성을 부정하는 교리이다.

V. 십계명의 왜곡

로마 카톨릭은 십계명 중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계명(출 20:4-6)을 삭제하거나,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교리적으로 우상 숭배를 정당화한다.

대신, 마지막 계명을 둘로 나누어 열 개를 맞추는 형식을 취한다.

계명	카톨릭 십계명	개신교 십계명
1	하나이신 하느님을 경외하여라.	너는 나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3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이름의 망령되게 하지말라.
4	부모에게 효도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5	사람을 죽이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7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네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로마 카톨릭교회는 역사 속에서 제도화와 권위주의 속에서 많은 교리적 오류를 누적 시켜왔다.

특히 우상숭배, 성경 외 전통의 강조, 교황과 성직자의 무오성 주장, 마리아와 성인 숭배, 십계명 왜곡 등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요, 참된 대제사장이며, 오직 성경만이 믿음과 행위의 최종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진리를 회복하기 위한 개신교의 종교개혁은 단순한 교회 개혁이 아닌, 복음의 본질 회복 운동이었다. 이 시대에도 이러한 ‘신앙 회복운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Catholic 의 구원론>

I. 구 원 관

1. 죄

- ① 타락은 인간을 총체적으로 변화시킨 것이 아니고 보다 악한 상태로 변화시킨다.
(종교개혁주의 : 인간은 타락에 의해서 자유를 완전히 상실함을 주장)
(자유 : 신에 대한 인간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해된 자유)
- ② 인간의 원죄는 세례를 통해서 용서되지만 정욕(concupiscence: 세속적인 욕망)은 남으며, 이 욕망은 죄에서 유래하고 죄로 유혹하지만, 그 자체를 곧 죄라고 하지 않는다.
- ③ 인간의 자연적 충동까지도 죄라고 보지 않는다.
- ④ 죄를 불신앙으로서, 신으로부터의 분리로서 이해하지 않고 신의 율법에 위배된 행위로서 이해.
(종교개혁주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신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주장)
- ⑤ 카톨릭 교인은 사제에게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아 죄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함.

2. 칭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수단적 원인은 세례식이며 이는 성례로서 이를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 ① 카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의롭게 된다고 믿지만, 이 칭의는 단순히 믿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카톨릭에 따르면, 칭의는 세례라는 성례를 통해 주어지며, 이 세례를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

또한, 이 은총(칭의)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으며, 인간이 적극적으로 이 은총에 협력할수록 그 은총은 더 완전하게 작용한다고 본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협력이 함께 작용해야 한다는 것이 카톨릭의 구원관이다.

- ② 믿음(신앙)을 지적 또는 도덕적 행위로서 이해하였다.

만일 이러한 의미의 신앙이라면 신적 은혜는 그대로 남아 있지만, 믿음은 잃게 된다는 것이다.

(종교개혁주의: 믿음을 통해 은혜를 받고 그로 인해 행위가 따르게 된다고 보며, 참된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구원은 "오직 믿음(Sola Fide)"을 통해 주어지며,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이라는 것이 핵심 교리이다)

3. 성례전

트리엔트 회의에서 칭의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종교개혁자들에게 대응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성례전의 이론에 대하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성례전은 그 자체의 고유한 힘(ex opere operato)을 통해 효력을 발휘한다.

사람이 성례전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성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며, 하나님과의 만남은 반드시 성례전을 통하여야만 이루어진다고 본다.

② 성례전 없이는 구원이 없다.

성례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구원의 능력을 지닌 제도이다.

따라서 성례에는 구원의 은총이 내재되어 있으며, 그 은총에 저항하지 않는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구원의 효력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③ 유아세례에 대해서도 성례적 효력을 인정한다.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세례의 물을 통해 원죄가 씻긴다고 주장한다.

이는 세례 자체가 능력을 지니며, 수세자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은총이 실제로 전달된다는 것이다.

II. 결 론

로마 가톨릭은 구원의 순서를 설명하는 데 있어 개인의 신앙 경험이나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보다 교회와 교회론을 우선시한다. 즉, 구원의 통로는 교회이며, 교회를 통한 성례전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이로 인해, 가톨릭은 성경 그 자체보다 교회의 권위와 교황의 무오성, 그리고 전통과 의식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가톨릭교회의 구원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원은 오직 성례전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인간의 행위나 내적 결단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교회가 집행하는 성례전이 필수적인 수단이다.

2. 성례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주어진다.

이는 성례전 그 자체에 효력이 있으며, 참여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동으로 전달된다.

3. 어린아이들도 세례를 통해 중생(거듭남)을 경험한다.

갓난아이라 할지라도 세례의 물을 통해 원죄가 씻기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고 본다.

4. 하나님의 칭의(의롭다 하심)는 인간의 의지에 따라 거부될 수도 있다.

또한 칭의는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인간의 협력, 즉 계명 순종과 선행을 통해 보존되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5. 믿음(신앙)은 지적 또는 도덕적 행위로 이해된다.

믿음은 단순한 전적 신뢰가 아니라, 이성과 도덕적 실천이 결합된 상태로 간주되며, 그 자체로 구원의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

6. 칭의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 상실될 수 있으며, 상실된 칭의는 고해성사를 하므로 사제의 사죄 선언을 통해 다시금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가톨릭의 구원론은 신앙과 은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 않으며, 성례, 교회, 순종, 행위, 그리고 교황과 성직 체계를 통해서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믿음(Sola Fide)' 원리와 뚜렷하게 구별된다.

<십자군전쟁 (CRUSADE)>

1. 개요

십자군(라틴어: croisade)은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감행된 중세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국가들이 회교도에 빼앗긴 성지 예루살렘을 탈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동의 이슬람 국가들에 대항한 대규모의 군사 원정을 가리킨다.(1095년 시작되었던 십자군 전쟁은 1456년까지 약361년 동안 계속) 그러나 십자군 운동은 처음의 순수한 열정과 달리 점차 정치적 경제적 이권에 따라 움직이면서 순수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그 절정은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함락시켜 같은 그리스도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을 몰아내고 라틴 제국을 세운 제4차 십자군이었다.

서유럽의 로마 가톨릭 측에서 보면 십자군 원정은 성전이었지만, 비잔티움 제국이나 이슬람 국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침략전쟁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라틴제국 : 제4차 십자군이 동로마 제국을 공략하여 세운 라틴계 십자군 국가)

2. 배경

1071년 동로마 제국이 이슬람에게 침략을 당하자 동로마의 황제 로마노스 디오게네스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투옥당함. 1081년 동로마 황제가된 '알렉시우스 콤네우스기'가 1086년 안티오크 베데스다 등의 도시가 이슬람에 빼앗기자 서방에 원군을 요청하여 교황이 민중과 그리스도교회를 선동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4. 원인

3세기 이후 기독교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애를 보냈던 지역을 방문, 즉 성지 순례 여행을 해왔다. 순례 여행이 안전하고 용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 양쪽의 상황이 모두 안정되어 있어야 했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의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던 하킴은 11세기 초에 선임자들의 관용적인 종교 정책을 포기하고 기독교 신자 및 유대인을 박해하기 시작함으로써 성지 순례 여행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1050년경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페르시아에 국가를 건설하고 이집트의 시아파 통치자들에 대항하여 수니파 이슬람의 옹호자가 되면서 순례 여행은 더욱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유럽은 성지를 이슬람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해방시키기를 원하였고, 당시 영주의 장남 이외의 아들들은 상속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지의 땅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또한 도시 상인들의 시장 개척에 대한 요구 등 종교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십자군 원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십자군의 시초는 1081년 당시 비잔티움 제국 황제인 알렉시오스 1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권의 공격에 시달렸고, 제국의 가장 중요한 영토인 아나톨리아 지역을 거의 잃을 지경이었다.

이에 알렉시오스 1세는 무슬림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그리스도교인들을 탄압한다는 과장된 주장을 하면서 로마 교황청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하였고, 당시 교황 우르바노 2세는 성지를 탈환하라는 연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선동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은 그의 선동에 설득되어, 전 서유럽에서 군대가 동원되었고, 이러한 움직임은 약 200여 년에 걸쳐서 일어났다.